■ 민족문화연구 제88호(2020.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19-146.
http://doi.org/10.17948/kcs.2020..88.119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ㅸ의 음운론적 지위와 본질*

장석(張碩)**

목 차

1. 서론
2. ㅸ의 음운론적 지위
3. ㅸ의 본질
4. 결론

국문초록

선학들이 오랫동안 ㅸ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ㅸ의 음운론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ㅸ은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다른 자모보다 특이하다. 따라서 ㅸ의 制字 원인을 비롯한 ㅸ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문제를 논의하였다.

본고는 ㅸ과 관련된 음변화, 최소대립쌍, 분포, 그리고 ㅿ, ㅇ과의 비교를 통해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았다. ㅸ은 수의적인 'ㅂ→w' 혹은 'ㅂ→Ø'의 한 단계이므로 음소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ㅸ과 다른 분절음의 진정한 최소대립쌍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ㅸ은 음소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분포적으로는 ㅸ과 ㅂ이 포괄적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AKS-2019-R28).

** 중국 보계문리학원 외국어대학 조교수.

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ㅸ이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한편, ㅸ의 성격과 비슷한 ㅿ, ㅇ이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ㅸ도 음소가 아니었을 것이다.

본고는 ㅸ의 소리 인식, 制字 원인, 그리고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을 논의하여 ㅸ의 본질을 밝혔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모두 외국어에 능통하고 SLM 이론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ㅸ의 制字 원인은 훈민정음 문자의 체계성, 외국어의 한글 표기와 관련된다. 한편, 세종은 소리보다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표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집현전 학자들은 精密的 표기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표기 의식은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이다.

주제어: 순경음비읍(ㅸ), 制字 원인, 소리 인식, /β/, 음소, 변이음.

1. 서론

ㅸ은 사라진 글자로 일찍이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ㅸ의 음가, 기원, 음운론적 지위, 변화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ㅸ을 유성 양순 마찰음 음소인 /β/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창기부터 ㅸ을 음소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1] 이러한 상황에서는 ㅸ의 음운론적 지위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ㅸ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 널리 사용되지만 1460년대에 간행된 『楞嚴經諺解』부터 사용이 폐지되었다. 이는 ㅸ의 성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암시한다.[2] 음소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ㅸ을 음소로 해석하면 이러

1) 필자는 ㅸ의 음운론적 지위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한 바가 있다. 장석, 「ㅸ의 연구사에 대하여」, 제44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9년 6월 28일, 69-71면.

2) 현존 고대 한국어 문헌, 전기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ㅸ의 흔적이 확인되지 못한다. 특히 ㅸ은 15세기 초의 문헌인 『朝鮮館譯語』에도 나타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朝鮮館譯語』에 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姜信沆은 『朝鮮館譯語』의 '得本', '数本', '以本', '吉卜格大', '都卜二', '餒必', '洒必'을 각각 '더ᄇᆞᆫ', '*수ᄇᆞᆯ', '*이ᄇᆞᆺ', '*기ᄇᆞᆯ거다(기울-)', '*두ᄇᆞᆯ', '누ᄇᆡ', '사ᄇᆡ'로 해석하였다. 姜信沆, 『朝鮮館譯語研究』, 成均館大 出版部, 1995, 142-143면. 이렇게 해석하는 원인에 대해 ㅸ의 음가가 [β]인 관계로 한어의 脣輕音 /f/로써 寫音하기가 부적합하여 /p/로 寫音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本', '卜', '必'은 幇母字(/p/)로 『朝鮮館譯語』에서 ㅂ과 대응된다. 그리고 『朝鮮館譯語』는 중국 譯官이 편찬한 책이고 당시 漢音에는 微母(/v/)가

한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 원인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ㅸ이 사라진 것에 대해 ㅸ의 비음운화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비음운화가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를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에 인색했다. 한편, 변이음은 일반적으로 의미 구별 기능이 없고 인식이 불가한 소리로 간주된다. ㅸ은 변이음으로 해석하면 인식이 불가한 소리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이러한 소리가 왜 문자로 표기되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3]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역시 많지 않다.

선학들이 오랫동안 ㅸ에 대해 연구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ㅸ의 음운론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ㅸ은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훈민정음의 다른 자모보다 특이하다. 따라서 ㅸ의 制字 원인을 비롯한 ㅸ의 본질과 관련된 논의도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문제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2. ㅸ의 음운론적 지위

본장에서는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4]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ㅸ의 기원을 밝혀야 한다. ㅸ의 기원에 대한 주장은 대개 /*p/ 기원설, /*b/ 기원설, /*β/ 기원설, /*ɸ/ 기원설로 나뉠 수 있다.[5]

존재하였다. 물론 [v]와 [β]는 조음위치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유성 마찰음이고 음성적으로 아주 유사한 소리다. 만약 당시 ㅸ이 존재했다면 편찬자들은 微母字를 선택해서 표기했을 것이다. 微母字가 아닌 幫母字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15세기 초에 ㅸ이 없다고 하겠다.

3) 심사위원 한 분은 변이음 인식이 늘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다. 한국인들이 초성에 있는 ㄱ과 종성에 있는 ㄱ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예로 제시해 주셨다. 그러나 ㅸ의 경우는 이와 차이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 있는 ㅂ은 수의적으로 [β]로 발음된다. 이러한 [β]는 /ㅂ/의 변이음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소리다. 만약 ㅸ은 음소가 아니고 그 음가가 [β]이었다면 현대 한국어의 [β]와 아주 비슷하다. 따라서 15세기에 사람들이 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문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4) 음소는 한 언어의 음운 체계에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소리 단위이다. 따라서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의 유무는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장에서는 ㅸ과 관련된 음변화, 최소대립쌍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고찰하겠다.

한편 분포, ㅸ과 ㅿ의 비교를 통해 ㅸ을 음소로 해석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다시 규명하겠다.

5) 필자는 ㅸ의 기원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고 각 주장의 문제점도 제시하였다. 장석, 앞의 글,

/*b/ 기원설, /*β/ 기원설, /*ɸ/ 기원설은 각각 /*b/, /*β/, /*ɸ/를 설정하고 ㅸ이 이러한 음소로부터 변해왔다고 주장하지만 /*b/, /*β/, /*ɸ/가 문증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p/ 기원설에 따라 ㅸ의 음운론 지위를 논의하겠다.

우선, ㅸ과 관련된 음변화를 통해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겠다.[6] 먼저 형태소 경계에 있는 ㅸ을 보겠다.

(A)
가. 無色界옛 ᄂᆞᆺ므리 <u>ᄀᆞᄅᆞᄫᅵᄀᆞ</u>티 ᄂᆞ리다[7]
나. ᄆᆞᆯ 우흿 <u>대ᄇᆞᆷ</u>믈 ᄒᆞᆫ 소ᄅᆞ로 티시며[8]
다. 北道애 보내어시ᄂᆞᆯ <u>글ᄇᆞᆯ</u>로 말이ᅀᆞᄫᆞᆫ ᄃᆞᆯ[9]
(B)
가. <u>소밥</u>ᄋᆞᆯ 아니 먹더니[10]
나. <u>새벼리</u> 나ᄌᆡ 도ᄃᆞ니[11]
다. 千里ㅅ 싸히 <u>ᄆᆞᆯ바래</u> 當홀 고ᄃᆞᆯ 안자셔 보리로다[12]

‘ᄀᆞᄅᆞᄫᅵᄀᆞ’가 ‘ᄀᆞᄅᆞ’와 ‘비’로, ‘대ᄇᆞᆷ’이 ‘대’와 ‘범’으로, ‘글ᄇᆞᆯ’이 ‘글’과 ‘발’로 분석된다. (A)를 통해 모음과 모음의 사이, 활음 [j]와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 있는 ㅂ이 ㅸ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세기 문헌에서 (B)와 같은 예도 확인된다. ‘소밥’이 ‘소’와 ‘밥’으로, ‘새별’은 ‘새’와 ‘별’로, ‘ᄆᆞᆯ발’이 ‘ᄆᆞᆯ’과 ‘발’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모음과 모음의 사이, 활음 [j]와 모음 사이, 유음 ㄹ과 모음 사이에 있는 ㅂ이

67-69면.
6) 김한별은 ‘ㅂ→ㅸ’의 규칙이 성조, 음절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한별, 「순경음 ㅸ에 대한 통시적 연구—ㅂ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2, 44-50면. 본고는 성조, 음절수를 따로 고찰하지 않겠다.
7) 『月印釋譜』 권1, 36ㄴ면.
8) 『龍飛御天歌』 권9, 39ㄱ면.
9) 『龍飛御天歌』 권4, 24ㄴ면.
10) 『內訓』 권1, 59ㄱ면.
11) 『龍飛御天歌』 권10, 20ㄱ면.
12) 『杜詩諺解』 권16, 42ㄱ면.

ㅸ으로 실현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A)와 (B)를 통해 비슷한 음운환경에 있는 ㅂ이 ㅸ으로 실현되는 경우,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ㅂ→ㅸ'의 규칙은 수의적 규칙[13]이라고 생각한다.[14]

문헌에서는 형태소 내부에 있는 ㅸ의 용례가 많지 않아 직접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ㅸ이 경우에 따라 활음 [w]로 변하거나 탈락하는 예들이 쉽게 확인된다. ㅸ이 ㅂ으로부터 변해온 것까지 고려하면 ㅸ과 관련된 음변화가 'ㅂ→ㅸ→w' 혹은 'ㅂ→ㅸ→Ø'로 해석된다. 만약 후기 중세 문헌에서 ㅂ이 [w]형태(혹은 탈락 형태)와 유지형태가 모두 확인되면 간접적으로 'ㅂ→ㅸ'의 규칙이 수의적 규칙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확인된다.

(C)
가. 竊盜ᄂᆞᆫ 일버슬씨라[15]
나. 竊 일워ᄉᆞᆯ 졀[16]

'일벚-[竊]'은 15세기 문헌에서 '일벗-' 형태가 확인되고 16세기 문헌에서 '일웗-' 형태가 확인된다. (C가)에서는 ㅂ이 아무 음변화를 겪지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 이러한 형태는 근대 문헌에서도 확인된다.[17] 이와 반대로 (C나)에서는 ㅂ이 [w]로 실현된다. 같은 단어에서 ㅂ의 유지형태와 [w]형태가 모두 확인되므로 'ㅂ→ㅸ→w'의 음변화는 수의적인 음변화로 생각한다.

한편, 재구를 통해 어중 ㅂ이 원래 있었다는 단어들도 존재한다. 이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3) 수의적 규칙은 동일한 형태에 음운 규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가리킨다.
14) 'ㅂ형'과 'ㅸ형'이 각각 다른 방언형이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ㅸ형'은 중앙 방언이고 'ㅂ형'은 남부 방언이었다. 그러나 중앙에서 간행된 문헌에 있는 형태가 중앙어가 아닌 다른 방언형인 것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부 방언형이 언제 중앙 방언에 어떻게 침투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15) 『法華經諺解』 권2, 167ㄴ면.
16) 『訓蒙字會』 下, 11ㄱ면.
17) 『杜詩諺解(重刊本)』 권6, 42ㄱ면. "ᄎᆞ마 能히 ᄂᆞᄎᆞᆯ 對ᄒᆞ야셔 일벗ᄂᆞ다"

〈표1〉 어중 ㅂ이 음변화를 겪은 단어[18)]

의미	재구형	중세형	의미	재구형	중세형
袴	*ᄀᆞᄇᆡ	ᄀᆞ외	啞	*버브-	버우-
麩	*기블	기울	喙	*브브리	부우리
鬚	*거븟	거웃	酒	*수블	수을
匱	*고ᄇᆞᆯ	골	邊	*시블	시울
仄	*기블-	그울-	幷	*아ᄇᆞᆯ-	아올-
霞	*ᄂᆞᄇᆞᆯ	ᄂᆞ올	葵	*야복	아옥
復	*ᄂᆞᄇᆡ-	ᄂᆞ외-	瘦	*여븨-	여위-
蠶	*누베	누에	全	*오ᄇᆞᆫ	온
妹	*누븨	누의	刮	*우븨	우의-
享	*누브리-	누리-	勞	*우벙	우웡
飜	*ᄃᆞᄇᆡ-	드위	隣	*이븟	이웃
髮	*ᄃᆞᆯᄇᆡ	ᄃᆞᆯ외	睡	*ᄌᆞᄇᆞᆯ-	ᄌᆞ올-
二	*두ᄇᆞᆷ	두ᄋᆞᆷ	秤	*저블	저울
臼	*ᄒᆞ박	ᄒᆞ왁	侵	*ᄀᆞᆯᄇᆡ	ᄀᆞᆯ외
杜鵑花	*진ᄃᆞᆯᄇᆡ	진ᄃᆞᆯ외			

〈표1〉에서 제시한 재구형은 중세형을 기준으로 방언자료와 고대 한국어 자료, 전기 중세 한국어 자료를 통해 재구하였다. 어중 ㅂ의 음운환경은 주로 모음과 모음 사이, ㄹ과 모음 사이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음운환경에서 ㅂ이 음변화를 겪지 않은 단어도 확인된다.

(D)
가ᄌᆞᆯ비-[喩], 가볼오-[簸], 거붑[龜], 고봄[瘡], 구블[腿], 나ᄇᆡ[蝶], 나변[片], 나봇기-[飄], 누비[縫], 니블[衾], 다봊[蓬], 더블-[輿], 비븨-[捻], 사복[鉸], 새박[芄], 아비[父], 져봄[撮], 져비[燕], 조방이[薊], 주븐ᄒᆞ-[凜], 주비[類], 쥬복[皰]

문헌에서 (D)와 같은 단어들이 확인된다. 모음과 모음 사이, ㄹ과 모음 사이에 있는 ㅂ은 다른 음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표1〉과 (D)를 통해 'ㅂ→ㅸ→w' 혹은 'ㅂ→ㅸ→Ø'가 수의적인 음변화임을 알 수 있다.

18) 이 표는 김한별의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김한별, 앞의 글, 32-33면.

이상으로 ㅸ과 관련된 음변화를 살펴보았다. ㅂ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수의적으로 ㅸ이 되고 형태소 내부에서도 이러한 약화현상이 일어난다. 'ㅂ→ㅸ→w' 혹은 'ㅂ→ㅸ→Ø'은 수의적인 음변화이고 ㅸ이 ㅂ에 소급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ㅸ이 음소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토출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현대 한국어 모음 사이에 있는 ㅂ은 수의적으로 [β]로 실현되지만 이러한 [β]는 음소로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β]는 ㅂ이 수의적인 마찰음화에 의해 생긴 것이고 [β]와 ㅂ은 변별적 대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최소대립쌍을 이용해서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겠다. 조세용[19], 김한별[20]은 '고ᄫᅳᆯ[麗] : 고ᄇᆞᆯ씨라[曲]', '구버[屈] : 구ᄫᅥ[炙]'와 같이 ㅂ과 ㅸ이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의미 분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대립쌍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헌에서 확인된 유일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
가. 나못가지 구버 와 힛 光ᄋᆞᆯ ᄀᆞ리더라[21]
나. 봇그며 구ᄫᅥ 젼ᄀᆞᆺ 먹더니[22]

'구버[屈] : 구ᄫᅥ[炙]'는 ㅂ과 ㅸ이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의미 분화를 보인다. 그러나 단어들의 기저형을 통해 최소대립쌍을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동석[23]은 '구버[屈]'와 '구ᄫᅥ[炙]'가 활용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만 의미가 변별된다면 진정한 최소대립쌍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모두 '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형에서의 의미 변별을 최소대립쌍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러한 최소대립쌍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

19) 조세용, 「15世紀 中期國語의 子音 音素體系에 관한 硏究」, 『동화와 번역』 제9집, 건국대 동화와 번역연구소, 1990, 10면.
20) 김한별, 앞의 글, 96-98면.
21) 『釋譜詳節』 권3, 15ㄴ면.
22) 『月印釋譜』 권21, 54ㄱ면.
23) 이동석, 「'ㅸ'의 음가론」, 『국어사연구』 제17호, 국어사학회, 2013, 96면.

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고 형태소가 결합하는 환경에서는 음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구버[屈] : 구ᄇᆞ[炙]'를 비롯한 예는 진정한 최소대립쌍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ㅸ과 다른 분절음의 진정한 최소대립쌍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ㅸ은 음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분포를 통해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겠다. 김석득[24], 박종철[25], 박창원[26], 최호섭[27], 장운혜[28]를 비롯한 학자들은 ㅸ과 ㅂ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못하므로 ㅸ을 음소로 해석하였다. 두 음성의 분포 유형은 대개 상보적 분포, 등적분포, 포괄적 분포, 중복분포 4가지로 요약한다.[29] 특히 두 음성이 등적분포나 포괄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면 이들을 모두 음소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ㅂ과 ㅸ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못한 것은 ㅂ과 ㅸ이 모두 음소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자음을 C로 표기하고 모음을 V로 표기하여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1음절과 2음절 단어를 '$C_1V_1C_2$', '$C_1V_1C_3C_4V_2C_2$'로 분석할 수 있다.[30]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C_1'은 어두 초성에 있는 자음이고 'C_2'는 어말 종성에 있는 자음이며 'C_3'은 어중 종성에 있는 자음이고 'C_4'는 어중 초성에 있는 자음이다. 후기 중세 한국어 음절에서 ㅸ은 'C_1', 'C_2', 'C_3'에 나타날 수 없고 'C_4'에만 출현한다. 그리고 'C_3'이 없거나 'C_3'이 유성음일 전제 조건에만 ㅸ이 'C_4'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ㅸ의 분포는 극히 한정되었다.

ㅸ의 한정된 분포와 반대로 ㅂ은 'C_1', 'C_2', 'C_3', 'C_4'에 자유롭게 나타난다. 그리고 조건 없이 'C_4'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ㅸ과 ㅂ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4) 김석득, 「中世脣輕音ㅸ音素攷」, 『人文科學』 제12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4, 5-10면.
25) 박종철, 「ㅸ音考」, 『語文硏究』 제4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6, 224-226면.
26) 박창원, 『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1996, 90-93면.
27) 최호섭, 「중세국어 ㅸ에 대한 연구—ㅸ의 음성적 실재와 음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32-33면.
28) 장운혜, 「중세국어 유성마찰음의 변천과 방언 분화—/ㅸ/와 /ㅿ/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8, 12-17면.
29) 정연찬,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1997, 62-66면.
30) 3음절 이상의 단어는 '$C_1V_1C_3C_4$ (…) $V_{(n-1)}C_3C_4V_nC_2$(n=음절수)'로 분석되고 음절 위치에 따라 자음의 종류가 4가지로 나뉜다.

〈표2〉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ㅱ과 ㅂ의 분포[31]

	C_1	C_2	C_3	C_4		
				C_3 없을 때	C_3 유성음일 때	C_3 무성음일 때
ㅱ	×	×	×	○	○	×
ㅂ	○	○	○	○	○	○

ㅱ과 ㅂ의 분포는 포괄적 분포에 해당된다. 포괄적 분포를 보이는 음성들은 한 음소에 속한다. 그리고 음절에 ㅂ이 ㅱ보다 더 많은 위치에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ㅱ은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ㅿ, ㅇ과의 비교를 통해 ㅱ의 음운론 지위를 고찰하겠다. 박병채[32], 장영길[33], 류렬[34] 등은 ㅱ과 ㅿ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ㅿ과 ㅅ은 상보적 분포에 있기 때문에 동일음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ㅱ도 ㅿ과 동일하게 음소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ㅱ, ㅿ, ㅇ을 각각 /β/, /z/, /ɦ/로 해석하고 이들을 묶어 유성 마찰음 계열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ㅿ과 ㅇ이 음소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ㅿ의 음운론 지위를 보겠다. 필자[35]는 문헌자료와 방언자료를 통해 ㅿ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자어에 있는 ㅿ, 고유어에 있는 ㅿ은 각각 한어 日母를 차용한 것, ㅅ으로부터 변해온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후기 중세 한자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가 확인된다.

(F)
가. 세ᄒᆞᆫ 人ᅀᅵᆫ이오[36]
나. 이 오ᄉᆞᆫ 信ᅀᅵᆫ을 表표ᄒᆞ니[37]
(G)

31) ㅱ과 ㅂ이 해당 환경에 존재하면 '○'로 표기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로 표기하였다.
32) 박병채, 『古代國語의 硏究』(音韻篇), 高麗大 出版部, 1971, 306면.
33) 장영길, 「15세기 국어의 자음체계 연구—그 음소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32-34면.
34) 류렬, 『조선말 력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2, 20면.
35) 장석, 『ㅿ반치음 연구』, 역락, 2018, 57-87면.
36) 『六祖法寶壇經諺解』 上, 4ㄴ면.
37) 『六祖法寶壇經諺解』 上, 51ㄱ면.

가. 이 ᄃᆞᆯ 十십五오日ᇙ에[38]
나. 室실에 들어ᄂᆞᆯ[39]

(F)와 (G)[40]에서 제시된 'ᄉᆡᆫ(人) : 신(信)', 'ᄉᆡᆯ(日) : 실(室)'은 최소대립쌍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소대립쌍을 비교할 때에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실제 발음되는 음운이 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41] 만약 ㅿ의 음가가 접근음 [j]이었다면 'ᄉᆡᆫ(人)', 'ᄉᆡᆯ(日)'을 비롯한 단어에서 ㅿ이 발음되지 않아 'ᄉᆡᆫ(人)', 'ᄉᆡᆯ(日)'의 실제 발음되는 분절음수는 각각 2개, 2개가 된다.[42] 그러나 '신(信)', '실(室)'의 실제 발음되는 분절음수는 각각 3개, 3개이다. 따라서 'ᄉᆡᆫ(人) : 신(信)', 'ᄉᆡᆯ(日) : 실(室)'은 최소대립쌍을 이룬다고 하기 어렵다.

필자[43]는 문헌을 통해 한국 일모 한자음의 변화를 /dz/〉/z/〉/j/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어의 膠遼官話와 粵語에서도 확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月印釋譜』에서는 한자어인 '人事'가 '인사', 'ᄉᆡᆫ사' 두 가지의 형태가 모두 확인된다.[44] 더군다나 15세기 문헌에서 以母字([Ø])인 '閻', 影母字([Ø])[45]인 '因'과 '印'이 ㅿ으로 표기된 형태도 확인된다.[46] 이러한 사실은 당시 한자어에서 ㅿ과 ㅇ이 서로 혼동되었음을 말해준다. 유성 마찰음[47] [z]는 강한 마찰을 동반하는 소리로 [zi]와 [i]가 서로 혼동되기 어렵다. 만약 ㅿ의

38) 『六祖法寶壇經諺解』 上, 3ㄴ면.
39) 『六祖法寶壇經諺解』 上, 44ㄴ면.
40) 『六祖法寶壇經諺解』에서는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닌 현실 한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41) 이진호, 「국어 최소대립쌍의 설정에 대하여」, 『어문학』 제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 121-126면.
42) 많은 언어에는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있지만 /ji/가 있는 언어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음소 /ji/는 체계적인 빈칸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장석, 「文獻으로 본 日母 漢字音의 變化」, 『한중인문학연구』 제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343-366면.
44) 가. 부톄 인ᄉᆞᄒᆞ신대. 『月印釋譜』 권2, 9ㄱ면.
나. 大衆을 신ᄉᆞᄒᆞ시니. 『月印釋譜』 권22, 18ㄴ면.
45) 한국 전승한자음에서 影母는 [Ø]로 실현된다. 동국정운 한자음에서 초성에 있는 影母는 ㆆ과 대응되고 종성에 있는 影母는 以影補來의 규정에 따라 쓰인다.
46) 가. 큰 龍용이 閻셤浮부提뎨예. 『六祖法寶壇經諺解』 上, 80ㄱ면.
나. 佛불光광 비취샤ᄆᆞᆯ 因신ᄒᆞ야. 『法華經諺解(改刊本)』 권1, 34ㄴ면.
다. 實실相샹印신ᄋᆞᆯ 니ᄅᆞ노라. 『法華經諺解(改刊本)』 권1, 70ㄴ면.
47) 마찰음은 통로가 좁아지면서 난기류(Turbulent Flow)가 생성됨으로써 마찰 소음이 동반되어 산출하는 소리이다. 마찰음의 레이놀즈수(Reynold's Number)는 1700보다 높다. 장석, 앞의 책, 2018, 197면.

음가가 접근음[48] [j]이었다면 '싄'과 '인'의 음가가 동일하므로 서로 쉽게 혼동된다. 따라서 한자음에 있는 ㅿ의 음가는 접근음 [j]로 해석된다.[49]

다시 (F)와 (G)를 보자. ㅿ은 접근음 [j]이고 이러한 접근음은 [j]활음 혹은 [i]모음 앞에서 실제로 발음되지 않는다. 따라서 '싄(人) : 신(信)', '싈(日) : 실(室)'은 서로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못하고 후기 중세 한자어에서 ㅿ은 음소가 아니었을 것이다.[50]

그리고 고유어에 있는 ㅿ의 음운론 지위를 보겠다. 15세기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예가 확인된다.

(H)
가. 嗚呼ᄂᆞᆫ 한숨디ᄐᆞᆺ ᄒᆞᆫ 겨치라[51]
나. 세 분이 프ᅀᅥ리예셔 자시고[52]
(I)
가. 한숨 디ᄂᆞᆫ 소리[53]
나. 프서리예 곧 서르 迷路ᄒᆞ리로다[54]

(H)와 (I)에서는 같은 단어의 ㅿ형태와 ㅅ형태가 모두 확인된다. 이에 대해

48) 접근음은 통로가 좁아지지만 난기류가 생성되지 않고 마찰 소음도 동반되지 않아 산출되는 소리다. 마찰음의 레이놀즈수는 0-1700의 구간에 있다. 같은 책, 197면.
49) 고유어에 있는 ㅿ도 접근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석, 「ㅿ-ㅸ의 연쇄로 본 ㅿ의 음가」, 『구결연구』 제36집, 구결학회, 2016a, 203-235면; 앞의 책, 2018, 146-194면.
50) 대부분 한자어에는 ㅿ의 뒤에 [i]모음 혹은 [j] 활음이 있다. 따라서 15세기의 한자어에 있는 ㅿ은 다른 자음과의 최소대립쌍이 존재하지 않고 음소가 아니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兒의 한자음은 'ᄉᆞ'이다. 그러나 15세기 문헌인 『朝鮮館譯語』에서는 '兒'와 '而'가 대응된 것이 확인되므로 15세기 초기에 兒의 한자음은 'ᄉᆡ' 혹은 '이'이었다. 兒가 'ᄉᆞ'로 표기된 형태는 15세기 말의 문헌에서 확인되고 兒가 'ᄉᆞ'로 표기된 원인은 2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 중국 북방 한어에서 일모의 음가가 변화하여 특히 兒化 현상이 일어나므로 당시 한국 한자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15세기 말에 동국정운 한자어 표기법이 폐지되므로 당시 한어 발음과 더 가깝게 수정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2015년 논문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장숴, 「兒의 한국 한자음에 대한 고찰」, 『아시아문화연구』 제38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15-239면.
51) 『月印釋譜』 序, 23ㄱ면.
52) 『月印釋譜』 권8, 93ㄴ면.
53) 『釋譜詳節』 권19, 14ㄴ면.
54) 『杜詩諺解』 권7, 8ㄴ면.

이기문[55]은 'ㅿ형'과 'ㅅ형'이 각각 다른 방언형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어 문헌에서 다른 지방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기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H)와 (I)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합성어이고 ㅿ은 형태소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 분명하다. 같은 음운환경에서 ㅿ형태와 ㅅ형태가 모두 확인된 것으로 보아 'ㅅ→ㅿ'의 규칙은 수의적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형태소 내부에 있는 ㅿ도 비슷한 양상이 보인다.

(J)
가. ㅿ如브섧 爲竈[56]
나. 고ᄌᆡ ᄂᆞ로ᄆᆞᆫ 므슷 일로 ᄲᅳᄅᆞ니오[57]
다. 限은 그스미라[58]
(K)
가. 브섭 ᄂᆡ예 庖廚의 머로ᄆᆞᆯ 알리로라[59]
나. 므슷 이ᄅᆞᆯ 겻고오려 ᄒᆞᄂᆞᆫ고[60]
다. 未來옛 그스ᄆᆞ로 알ᄑᆡ 塵劫을 가ᄌᆞᆯ비건댄[61]

같은 시기의 문헌에서는 '브섭 : 브섭', '므슷 : 므슷', '그슴 : 그슴'이 모두 확인된다. 이는 형태소 내부에서 'ㅅ→ㅿ'의 음변화가 수의적인 음변화임을 말해준다.

고유어에 있는 ㅿ은 수의적인 'ㅅ→ㅿ' 규칙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후기 중세 고유어에서 ㅿ은 음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62]

이상으로 ㅿ의 음운론적 지위를 어원에 따라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후기

55) 李基文, 『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1972, 34면.
56) 『訓民正音』 解例, 25ㄴ면.
57) 『杜詩諺解』 권10, 16ㄱ면.
58) 『法華經諺解』 권3, 41ㄱ면.
59) 『杜詩諺解』 권14, 19ㄱ면.
60) 『釋譜詳節』 권6, 27ㄱ면.
61) 『法華經諺解』 권3, 165ㄴ면.
62) 필자의 2016년 논문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장석,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ㅿ의 음운 자격」, 『민족문화연구』 제72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b, 403-430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ㅿ이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계속 ㅇ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자. ㅇ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무음가설, 유음가설로 나뉜다.[63] 무음가설에 따르면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유음가설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ㅇ은 'ㄱ〉∅'의 변화에서의 한 단계이고 그 음가가 유성 후두 마찰음 [ɦ]이다. 이러한 ㅇ의 음운론적 지위를 살펴보자.

(L)
가. 梨浦 빗애[64]
나. 楸洞 ᄀᆞ래올[65]
다. 畜은 매 놀애 티ᄃᆞ시 가빗얍고 ᄲᅳᆯ씨오[66]
(M)
가. 籩은 대그르시오[67]
나. 빗골폼과 목ᄆᆞᆯ롬과 老病死ᄂᆞᆯ히오[68]
다. 金 놀개라 혼 ᄠᅳ디니 두 놀개 ᄊᆞᅀᅵ 三百三十六萬里오[69]

'빗애'는 '빗'와 '개'를 합친 것으로 'ᄀᆞ래올'은 'ᄀᆞ래 + 골'로, '놀애'는 '놀- + -개'로 분석되고 '대그릇', '빗골폼', '놀개'는 각각 '대 + 그릇', '빗 + 골폼', '놀- + -개'로 분석된다. 같은 음운 환경에 있는 ㄱ은 ㅇ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그대로 유지되는 예가 모두 확인된다. (L)과 (M)을 통해 'ㄱ〉∅'은 수의적 음변화로 해석된다. 그리고 ㅇ이 ㄱ으로 소급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ㅇ은 음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후음 계열에 ㅎ이 있는데 ㅎ의 음가가 보통 무성

63) 그 밖에 juncture phoneme설도 있는데 juncture는 ㅇ자체가 아니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연찬,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제16집, 국어학회, 1987, 16면.
64) 『龍飛御天歌』 권3, 13ㄴ면.
65) 『龍飛御天歌』 권10, 19ㄴ면.
66) 『月印釋譜』 권10, 78ㄱ면.
67) 『楞嚴經諺解』 권6, 100ㄱ면.
68) 『月印釋譜』 권7, 53ㄴ면.
69) 『月印釋譜』 권1, 14ㄴ면.

후두 마찰음 [h]로 해석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유성음 환경에 있는 ㅎ이 유성음으로 실현되거나 탈락한다. 이러한 ㅎ의 탈락 현상이 후기 중세 문헌에서도 확인되므로[70] 그 시기에 ㅎ의 유성음화 현상도 존재했을 것이다.[71] 따라서 [ɦ]는 /h/에 속한 음성이고 ㅇ은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한편, ㅎ과

---

70) 가. 杵는 방핫괴니 굴근 막다히 ᄀᆞᄐᆞᆫ 거시라. 『釋譜詳節』 권6, 31ㄴ면.
나. 뎌 자본 갈 막대 미조차 긏그티 ᄒᆞ야디여. 『法華經諺解』 권7, 53ㄴ면.
다. 프른 시내해 비록 비 해오나. 『杜詩諺解』 권7, 8ㄱ면.
라. ᄆᆞᅀᆞᆯ햇 ᄇᆡᄂᆞᆫ 거스려 시내로 오ᄅᆞ놋다. 『杜詩諺解』 권25, 23ㄴ면.

71) 소신애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 있는 ㅎ이 유성음화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ㅎ이 강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후기 중세 한국어의 ㅎ이 현대 한국어의 ㅎ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유기성을 지닌 유기음으로 실현되었음 지적하였다. 소신애, 「ㅎ의 音價 變化 및 관련 음운 현상의 共時的 기술—ㅎ의 有氣性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5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17면. 그러나 유기성은 유성음화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2년에 소신애는 'ㅅ>ㅈ'의 변화를 청자의 오분석으로 인한 변화로 해석하고 중세 한국어에서는 ㅅ이 유성음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신애는 현대 한국어의 ㅅ은 음성적으로 무기음과 유기음의 중간적 속성을 지닌 음으로 과거에 비해 ㅅ의 유기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하였다. 소신애, 「국어의 ㅿ>ㅈ 변화에 대하여」, 『震檀學報』 제114호, 震檀學會, 2012, 76면.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의 ㅅ은 중세 한국어의 ㅅ보다 강한 유기성을 가지고 있고 유성음화가 일어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유성음 사이에 있는 ㅅ이 유성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86-87면. 따라서 유기성은 유성음화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없고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ㅎ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지 않는 주장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각주 70)에서 제시한 것처럼 '막다히'와 '막대', '시냏'와 '시내'의 예들은 ㅎ이 탈락한 예이다. 이러한 ㅎ 탈락은 자음의 약화에 속한다. 자연언어에서는 주로 다음 6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a. 이중자음(geminate) 〉 단자음(simplex)
b. 파열음(stop) 〉 마찰음(fricative) 〉 접근음(approximant)
c. 파열음(stop) 〉 유음(liquid)
d. 구강음(oral) 〉 성문음(glottal)
e. 非鼻音(non-nasal) 〉 비음(nasal)
f. 무성음(voiceless) 〉 유성음(voiced)

ㅎ은 무성 후두 마찰음이기 때문에 ㅎ 탈락은 논리적으로 (b)와 (f)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후두 계열은 접근음이 존재하지 않아 (b)도 제외된다. 따라서 ㅎ 탈락의 가능한 약화 유형은 (f)이고 ㅎ은 우선 유성음화를 겪은 다음에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朝鮮館譯語』에서는 '紙 着必 直'의 기록이 있는데 '着必'은 '죠히'와 대응된다. '必'은 幫母字로 ㅂ과 대응되고 '着必'은 '죠히'로 변한 것이 'ㅂ>ㅎ'의 음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ㅂ은 파열음이고 ㅎ은 마찰음이며 'ㅂ>ㅎ'의 음변화는 약화에 해당된다. 이러한 약화를 위에서 제시한 약화 유형으로 분석하면 'p→b→β→ɦ'가 된다. 유성음 사이에 있는 ㅂ은 유성음화(f)가 일어나 유성 양순 파열음이 된 후에 마찰음화(b)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성문음화(d)가 일어나 ㅎ이 된다. ㅂ은 유성음 사이에 필수적으로 유성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ㅂ>ㅎ'의 ㅎ도 유성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ㅇ은 포괄적 분포를 이루고 있고 ㅇ은 상대적 한정적 환경에만 출현하므로 음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ㅇ은 음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상으로 ㅿ과 ㅇ의 음운론적 지위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하였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ㅿ과 ㅇ이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ㅸ은 ㅿ, ㅇ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역시 음소이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본 장에서는 ㅸ과 관련된 음변화, 최소대립쌍, 분포, 그리고 ㅿ, ㅇ과의 비교를 통해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았다.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ㅸ은 음소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3. ㅸ의 본질

2장에서는 ㅸ의 음운론적 지위를 살펴보았고 ㅸ이 음소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음소는 인식되기 쉬운 소리로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ㅸ이 음소가 아니었다면 [*β*][72]는 변별적 기능이 없고 인식되기 어려운 소리였다. 이러한 소리가 어떻게 인식되고 문자까지 만들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변별적 기능이 없는 ㅸ은 고유어에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도 설명해야 한다. 본장에서는 ㅸ의 소리 인식과 制字 원인, 그리고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ㅸ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1) ㅸ의 소리 인식

한 언어에서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소리는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더 많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절에서는 조선 초기의 외국어 환경,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학자와 세종의 외국어 실력을 살펴보고 제2언어 습득과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72)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ㅸ의 음가를 [*β*]로 재구하였다. 편의상 ㅸ의 음가를 [*β*]로 표기한다. 필자의 2020년 논문에서는 ㅸ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장석, 「ㅸ의 음가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제66집, 한중인문학회, 2020, 215-239면.

ㅸ의 소리 인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일찍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여러 譯語를 학습하기 위해 史臺라는 관청을 설치하였다.[73] 고려시대에는 通文館을 비롯한 관청이 설치되어 譯語敎育과 통번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司譯院을 설치하였다. 司譯院은 초기에 중국어를 肄習하는 관청이고[74] 그 이후에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도 추가되었다.[75] 조선시대에 事大交隣은 三大國是의 하나로 외교의 기본 노선이고 중국, 여진, 몽골,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역관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76] 역관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학서가 발간되고[77] 과거 시험인 譯科試取 제도도 마련되었다.[78]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에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에 능통하는 역관들이 있었다.

다음은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학자들의 외국어 실력을 보겠다. 『訓民正音』의 鄭麟趾 서문에 의하면 鄭麟趾, 崔恒, 朴彭年, 申叔舟, 成三問, 姜希顔, 李塏, 李善老 등 학자들이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444년에 崔恒, 朴彭年, 申叔舟, 姜希顔, 李塏, 李善老는 『古今韻會擧要』를 諺文으로 번역하라는 세종의 명령을 받았다.[79] 『古今韻會擧要』는 중국의 운서이고 이를 번역하려면 중국어의 음운 체계는 물론 일정한 중국어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古今韻會擧要』 번역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중국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申叔舟는 日本通信使 書狀官으로 일본에서 9개월 동안 체류한 적이 있고[80] 1445년에 세종의 명령을 받아 成三問과 遼東에 간 사실도 확인된다.[81]

---

73) 『三國史記』 卷50. "孝恭王八年, 天佑元年甲子. (…) 又置史臺, 學習諸譯語."
74) 『太祖實錄』 卷4 2年 9月 辛酉. "置司譯院, 肄習華言."
75) 『世宗實錄』 卷95 24年 2月 乙巳. "其餘蒙、倭、女眞學徒, 亦依此例施行."
76) 임동석, 「朝鮮時代 外國語 敎育에 對한 一考」, 『學術誌』 제33집, 건국대 학술연구원, 1989, 151면.
77) 『世宗實錄』 卷47 12年 3月(1430) 戊午. "譯學: 漢訓, 『書』、『詩』、四書、『直解大學』、『直解小學』、『孝經』、『少微通鑑』、前後漢『古今通略』、『忠義直言』、『童子習』、『老乞大』、『朴通事』、漢語. 蒙訓, 『待漏院記』、『貞觀政要』、『老乞大』、『孔夫子』、『速八實』、『伯顔波豆』、『土高安』、『章記』、『巨里羅』、『賀赤厚羅』. 書字, 偉兀眞、帖兒月眞. 倭訓, 『消息』、『書格』、『伊路波』、『本草』、『童子敎』、『老乞大』、『議論』、『通信』、『庭訓往來』、『鳩養勿語』、『雜語』、書字."
78) 임동석, 앞의 글, 157-161면.
79) 『世宗實錄』 卷103 26年 2月(1444) 丙申. "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80) 강신항, 「申叔舟의 音韻學」, 『語文硏究』 제30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350면.

이를 통해 申叔舟는 일본어, 중국어를 능통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姜希孟이 쓴 「文忠公行狀」에서 "公俱通漢、倭、蒙古、女眞等語. 時或不假舌人, 亦自達意. 後公手翻諸譯語以進, 舌人賴以通曉."라는 구절은 이러한 추론을 증명할 수 있다.

계속해서 세종의 외국어 실력을 살펴보겠다. 『訓民正音』 例義의 첫 구절은 "國之語音, 異乎中國."이다. 음성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보아 세종은 중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東國正韻』 서문에 "此我聖上所以留心聲韻, 斟酌古今, 以開億載之羣蒙者也."라는 구절이 있다. 따라서 세종은 聲韻學에 관심이 있고 중국 운서를 많이 봤을 것이다. 『洪武正韻譯訓』 서문에서 "我世宗莊憲大王, 留意韻學, 窮研底蘊."이라는 기록도 확인되고 이는 세종이 聲韻學을 깊이 연구하였음을 말해준다. 한편, 세종은 崔萬理의 반대 상소를 보고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라고 반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세종이 聲韻學에 대해 가진 자신감을 엿볼 수 있고 聲韻學의 전문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82] 聲韻學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세종은 聲韻學 전문가로서 중국어를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선 초기에 외국어에 능통하는 譯官이 있었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은 중국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학자들도 외국어에 능통하였다. 한국어는 당시 사람들의 제1언어(L1)가 되고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는 제2언어(L2), 제3언어(L3) 등이 된다. SLM(Speech Learning Model) 이론에 따르면 L1과 L2의 음들은 추상적인 음소 차원이 아니라 변이음 차원에서 서로 지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은 L2를 오래 공부하면 할수록 원래 식별되지 못한 음성들을 인식하게 되고 새로운 음성 범주(phonetic category)가 형성된다.[83] 다시 말하자면 제2언어

81) 『世宗實錄』 卷107 27年 1月(1445) 辛巳.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成均注簿成三問、行司勇孫壽山于遼東, 質問韻書."

82) 이숭녕,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아연구』 제1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33면.

83) James Emil Flege,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Timonium MD:York Press, 1995, pp.239-240.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음성들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음성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L1에 존재하지 않고 L2에 있는 음성이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는 [f]가 없지만 한국인들은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음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 다른 한 종류는 L1에 변이음으로 존재하는데 L2의 학습을 통해 이러한 L1의 변이음을 식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사'와 '시'에서의 'ㅅ'의 음성적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이러한 'ㅅ'들이 음성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s]와 [ɕ]가 변이음으로 /s/에 속하지만 중국어에서는 [s]와 [ɕ]가 모두 인식 가능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도 있다. 알다시피 현대 중국어에는 성조가 4개 있다. '[pā](八)', '[pá](拔)', '[pǎ](把)', '[pà](爸)'에서의 [p]에 대해 보통 중국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2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pā](八)'에 있는 [p]와 '[pà](爸)'에 있는 [p]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음성적으로 '[pā](八)'에 있는 [p]는 한국어 평음인 ㅂ과 유사하고 '[pà](爸)'에 있는 [p]는 한국어 경음인 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84] 이처럼 제2언어 학습자들은 공부를 통해 음성적으로 L2의 특정한 소리와 비슷한 L1의 변이음을 인식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에 事大交隣은 三大國是의 하나로 주변 나라와의 원만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역관 양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조선은 국가 측면에서 외국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 내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세종과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학자들은 외국어를 능통하므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외국어를 공부했을 것이다. L2를 오래 공부하면 원래 식별이 불가한 음성들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어에 능통하는 세종과 학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음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9세기부터 漢語에 輕脣音이 생겼고 이 시기의 輕脣音인 非母, 敷母, 奉母, 微母이 일반적으로 [f], [fʱ], [v], [m]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84) 이를 이용하여 한국어 장애음 교육 방안을 설계한 연구도 있다. 장가문, 「중국어 성조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남어문학』 제37집,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2013, 179-200면.

세종은 崔恒, 朴彭年, 申叔舟, 姜希顔, 李塏, 李善老 등에게 『古今韻會擧要』를 諺文으로 번역하라고 명령하였다. 『古今韻會擧要』에는 非母, 奉母, 微母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종과 훈민정음의 해례에 참여한 학자들은 [v]를 접하였다. [v]와 [β]는 모두 유성 마찰음이고 조음위치 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음성적으로 아주 유사하다. SLM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외국어 공부를 통해 L2의 특정한 소리(奉母[v])와 비슷한 L1의 변이음([β])을 인식할 수 있다.

2) ㅸ의 制字 원인

2장에서는 고유어에 있는 ㅸ이 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ㅸ은 음소가 아니었다면 잉여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세종이 이러한 잉여적인 글자를 만드는 원인에 대한 고찰은 필요로 한다.

15세기 고유어에는 음소가 아닌 자모가 ㅸ만 아니다. 2장에서 언급한 ㅿ과 ㆁ[85], 그리고 훈민정음 28자인 ㆆ도 이에 해당된다.[86] 이들은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일종의 잉여적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글자들을 만든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와 관련된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중국 운서의 七音體系, 淸濁體系에 따라 만들었다. 七音體系는 자음이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齒音, 半舌音 7종류로 나뉘고 淸濁體系는 자음이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 4종류로 구분된다. ㅿ이 없으면 七音體系가 무너지게 되고 ㆁ과 ㆆ이 없다면 淸濁體系에 결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모들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어의 輕脣音은 9세기경에 생겼고 그 이후의 운서에서는 重脣音과 輕脣音 두 가지의 순음 계열이 확인된다. 훈민정음의 脣音은 운서의 重脣音과 대응되고 脣輕音은 운서의 輕脣音과 대응된다. 그리고 15세기의 고유어

85) 여기의 ㆁ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ㆁ이다.

86) 『訓民正音』 해례에서는 "初聲之ㆆ與ㆁ相似, 於諺可以通用也."라는 구절이 있다. 이를 통해 초성의 ㆆ은 ㆁ과 비슷해서 고유어에서는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유어에서의 ㆆ은 초성에 올 수 없고 어미 'ᄂᆞᆼ', 『용지어천가』와 『훈민정음언해』의 사잇소리 표기에만 나타나며 그의 쓰임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리고 'ᄂᆞᆼ + 평음'은 '-ㄹ + 각자병서'로 바꿔 표기해도 좋고 사잇소리로 쓰인 ㆆ은 ㅅ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ㆆ은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와 동국정운 한자어의 초성 체계에는 순경음 계열이 없었다. 더군다나 운서의 七音體系에는 輕脣音이 없고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는 脣輕音도 없다. 따라서 순경음은 중국 운서의 체계와 일치화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다.[87]

둘째, 훈민정음의 문자 제작 원리이다. 상형으로 기본 자음자가 만들어지고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면 더 센 자음이 제작된다. ㅇ은 후음 계열의 기본자이고 ㅇ에다가 획을 더하면 ㆆ이 만들어지며 획을 한번 더하면 ㅎ이 된다. ㅇ과 ㆆ이 없다면 ㅎ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일관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관련된다.[88] 세종은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날마다 편하게 쓰기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를 비롯한 외국어도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심지어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바람 소리, 학의 울음, 닭의 홰치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89] 언어마다의 음운체계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 언어를 언문으로 표기하는 데에 쓰이는 한글 자모도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자모는 언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잉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동국정운 한자어에는 ㅿ, ㆁ, ㅇ이 나타나고 중국어를 언문으로 표기할 때 ㅱ, ㅿ, ㆁ, ㅇ이 반드시 필요하며 몽골어, 일본어 등 다른 외국어 표기에서 ㅱ, ㅿ이 확인된다. 이처럼 ㅱ, ㅿ, ㆁ, ㅇ은 고유어에 잉여적인 요소로 존재하지만 동국정운 한자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모이다.

한편, 齒頭音인 ㅈ, ㅉ, ㅊ, ㅅ, ㅆ과 正齒音인 ㆎ, ㅉ, ㅊ, ㅅ, ㅆ은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기존의 치음 자모를 개조한 것이고 고유어나 동국정운 한자어에 불필요하다. 이밖에 半舌輕音인 ㆋ도 있는데 이것은 고유어, 한자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여진어, 몽몰어 등 외국어 표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87) 『訓民正音』에서는 순경음의 제자 원리, 음가를 설명할 때 순경음을 전체로 묶어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다른 자모와 다르다.

88) 이 부분은 『國語音韻史硏究』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李基文, 앞의 책, 8-9면.

89) 鄭麟趾, 「序」, 『訓民正音』. "雖風聲鶴唳, 雞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는 그 당시에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문자 표기에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세종의 판단에서 만들어진 것이다.[90]

이상으로 고유어에서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자모들의 制字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원인은 훈민정음의 문자 체계, 문자의 제작 원리, 창제 목적과 관련된다. 이 중에서 ㅱ의 制字 원인을 다시 정리하자면 ㅱ은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가 아니라 훈민정음 문자의 체계성,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3) ㅱ의 고유어 표기 원인

ㅱ은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 널리 사용되지만 1460년대에 간행된 『楞嚴經諺解』부터 사용이 폐지되었다. 고유어에 있는 ㅱ이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사라진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ㅱ은 잉여적인 글자인데 애초부터 이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본 절에서는 이를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표기 의식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세종의 표기 의식을 보겠다. 세종이 『月印千江之曲』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세종의 표기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月印千江之曲』은 부분적으로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운용하였고 이는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釋譜』를 비롯한 다른 중세 문헌과의 큰 차이점이다. 예를 들어 '체언 + 조사'의 환경에서는 '눈에'처럼 분철로 표기되었고 '용언 어간 + 어미'의 환경에서는 '담아'와 같은 분철 표기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종성 표기는 '終聲復用初聲'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심지어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은 'ᄂᆞᆺ', 'ᄇᆡᆺ', 'ᄆᆞᆺ', 'ᄋᆞᆺ', 'ᄂᆞᄑᆞᆺ'을 각각 'ᄂᆞᇙ', 'ᄇᆡᇙ', 'ᄆᆞᇙ', 'ᄋᆞᇙ', 'ᄂᆞᄑᆞᇙ'으로 교정한 흔적도 확인된다.[91] 이러한 사실은 체언과 용언 어간의 기저형(혹은 어원)을 밝혀 적으려는 세종의 의도가 반영된다.

ㅱ의 쓰임은 세종의 형태 위주 표기 의식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겸양법 선어말어미, 일부 종성 ㅂ을 가진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와

90) 『訓民正音』 合字解.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可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ㄹ連書ㅇ下, 為半舌輕音, 舌乍附上腭."

91) 李基文, 앞의 책, 74-76면.

결합할 때 ㅂ이 약화 현상이 일어난다. 세종은 약화 현상을 겪은 ㅂ이 이미 [w]로 변하고 있음을 알고도[92] 기저형을 의식해서 이러한 ㅂ을 [w](오 혹은 우)로 표기하지 않고 순경음인 ㅸ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93] 순경음은 약한 자음으로 ㅸ, ㆄ, ㅹ, ㅱ이 있다. ㅸ, ㆄ, ㅹ, ㅱ은 淸濁으로 분류하면 각각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이 된다. 음성적으로는 약화 현상을 겪은 ㅂ을 무성 마찰음인 전청자 ㅸ보다 유성 마찰음인 전탁자 ㅹ, 혹은 접근음인 불청불탁자 ㅱ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ㅹ 혹은 ㅱ으로 표기되면 ㅂ으로부터 변한 것을 연상하기 매우 어렵다. 소리보다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세종의 표기 의식은 바로 ㅸ을 택한 원인이 된다.

다음, 집현전 학자들의 표기 의식을 살펴보겠다. 『龍飛御天歌』는 鄭麟趾, 權踶, 安止 등에 의해 편찬되었고 朴彭年, 申叔舟, 李賢老, 李塏, 姜希顔, 成三問 등 학자들은 이를 보완하였다. 이 문헌을 통해 당시 집현전 학자들의 표기 의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龍飛御天歌』는 다른 후기 중세 문헌과 같이 連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月印千江之曲』과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현전 학자들이 형태보다 소리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종성 표기는 『月印千江之曲』과 같이 '終聲復用初聲'의 표기 원칙을 따랐고[94] 이는 다른 후기 중세 문헌과의 차이다. '終聲復用初聲'의 표기법은 '八終聲'의 표기법보다 형태주의 표기 의식이 반영된다. 連綴 표기와 종성 표기를 통해 집현전 학자들이 소리를 중요시하면서도 형태주의 표기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성이 자모 8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자모로 표기된 것은 일종의 정밀적 표기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정밀적 표기 의식은 사잇소리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후기 중세 문헌에서 사잇소리는 ㅅ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지만[95] 『龍飛御天歌』에는 ㅅ 이외에 ㄱ, ㄷ, ㅂ, ㆆ, ㅿ 등도 있

92) 『釋譜詳節』 序와 『月印釋譜』 序를 통해 세종이 『釋譜詳節』을 보고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釋譜詳節』에서는 ㅸ이 [w]로 표기된 예가 확인되고 세종도 이를 알았을 것이다.
93) 그 반면에 'ᄃᆞ외-', 'ᄒᆞ오ᅀᅡ'는 원래 ㅂ을 가진 형태로 분석되기 어려운 단어이다. 이들은 ㅂ으로부터 변해온 것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ㅸ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94) 물론 팔종성 표기법을 따른 형태도 확인된다.
95) 『訓民正音』 언해본에는 『龍飛御天歌』와 비슷한 사잇소리 표기가 있다.

고 이러한 사잇소리 글자는 환경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잇소리 표기를 통해 집현전 학자들의 정밀적 표기 의식을 엿볼 수 있다.

ㅸ의 쓰임에 대해 보겠다. 『龍飛御天歌』에서는 겸양법 선어말어미, 합성어, 그리고 일부 종성 ㅂ을 가진 용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와 결합할 때 ㅸ이 나타난다. 당시에 유성음 사이에 있는 ㅂ이 약화 현상이 일어나고 약화 현상을 겪은 ㅂ과 겪지 않은 ㅂ은 음성적으로 차이가 있다. 집현전 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소리 위주 표기 의식과 精密的 표기 의식을 적용하여 ㅂ을 두 가지로 나눠 표기하였다. 그리고 약화 현상을 겪은 ㅂ의 어원을 감안하여 이러한 음성을 ㅸ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한편, 15세기 고유어에서 ㆆ은 음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이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예도 확인된다. 이러한 ㆆ은 ㅸ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므로 ㆆ을 살펴보자.

고유어에 있는 ㆆ은 초성에 나타날 수 없고 종성에만 나타나며 주로 사잇소리, 관형사형 어미 ㅭ으로 쓰인다.[96] 사잇소리로 쓰인 ㆆ과 관형사형 어미 ㅭ은 모두 『龍飛御天歌』에 처음 나타난다. 그리고 사잇소리로 쓰인 ㆆ은 집현전 학자들의 精密的 표기 의식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ㅭ도 精密的 표기 의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당시에 ㄹ 뒤에 후행하는 평음은 약화 현상이 일어나지만[97]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있는 평음은 강화 현상이 일어난다.[98] 집현전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식했고 두 가지의 ㄹ을 구별하게 표기하려고 ㅭ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龍飛御天歌』에서 확인된다. 『龍飛御天歌』에는 '하ᄂᆞᆭ ᄠᅳᆮ'[99]이 여러 차례

96) 『楞嚴經諺解』에서는 'ᄉᆞᆰ지-[腦]', 'ᄒᆞᆷ-[舔]' 등 용언 어간에 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李翊燮은 이러한 예를 ㆆ이 잘못 쓰인 예라고 지적하였다. 李翊燮, 『國語表記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2, 71-74면.

97) 예를 들어 ㄹ은 후행하는 ㄱ을 ㆁ으로, ㅂ을 ㅸ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98) 학계에서는 'ㅭ+평음'과 'ㄹ+각자병서'의 차이가 표기법의 차이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음은 각자병서가 되는 것이 일종의 자음 강화 현상이다.

99) 가. 岐山 올ᄆᆞ샴도 하ᄂᆞᆭ ᄠᅳ디시니. 『龍飛御天歌』 권1, 6ㄴ면.
나. 德源 올ᄆᆞ샴도 하ᄂᆞᆭ ᄠᅳ디시니. 『龍飛御天歌』 권1, 6ㄴ면.
다. 하ᄂᆞᆭ ᄠᅳ들 뉘 모ᄅᆞᅀᆞᄫᆞ리. 『龍飛御天歌』 권9, 37ㄴ면.

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있는 ㆆ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ㄹ 뒤에 후행하는 사잇소리는 ㆆ보다 ㅅ 혹은 ㅿ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100] '뜯'의 초성에는 ㅺ이 나타나고 ㅺ은 평음보다 강한 자음이다. 집현전 학자들은 이러한 강한 자음을 선행하는 ㄹ로 인해 평음으로부터 변한 것으로 誤分析하거나 過度分析하면 '하ᄂᆞᆯ'에 있는 ㄹ을 ㅭ으로 표기했을 것이다.[101] 따라서 종성에 있는 ㅭ은 精密的 표기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釋譜詳節』의 동명사형 표기에서는 'ㅭ+평음'과 '-ㄹ+각자병서'의 두 가지의 표기 방식이 확인된다.[102] 세종은 이 두 가지 표기 방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月印千江之曲』을 편찬하였다. 세종은 'ㅭ+평음'과 '-ㄹ+각자병서'를 혼용하지 않고 'ㅭ+평음'의 표기 방식만 택하였다. 'ㅭ+평음'은 형태소를 고려하여 표기하는 방식이지만 '-ㄹ+각자병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세종은 소리보다 형태를 중요시하는 표기 의식이 강하므로 이것은 세종이 'ㅭ+평음'을 택한 원인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 본 절에서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표기 의식을 분석하여 ㅱ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을 논의하였다. 세종은 소리보다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표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세종의 표기 의식은 바로 ㅱ이 쓰이는 원인이 된다. 집현전 학자들은 精密的 표기 의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ㅱ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후기 중세 한국어에서의 ㅱ의 음운론적 지위와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론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겠다.

---

100) 가. 깊 ᄀᆞ새 軍馬 두시고. 『龍飛御天歌』 권7, 41ㄱ면.
나. 하ᄂᆞᆳ 벼리 눈 ᄀᆞᆮ 디니이다. 『龍飛御天歌』 권7, 1ㄱ면.
다. 오ᄂᆞᆳ 나래 내내 읊브리. 『龍飛御天歌』 권3, 15ㄴ면.
라. 바ᄅᆞᆳ 우희 金塔이 소ᄉᆞ니, 『龍飛御天歌』 권9, 35ㄱ면.

101) 다시 말하자면 '하ᄂᆞᆳ'에서의 ㆆ은 사잇소리가 아니고 종성 ㅭ의 일부이었다.

102) 가. 디퍼 ᄃᆞᆯᆶ 저긔 錫錫ᄒᆞᆫ 소리 날 씨 錫杖이라 ᄒᆞ니라. 『釋譜詳節』 권3, 20ㄱ면.
나. 錠光佛ᄭᅴ 받ᄌᆞᄫᆞᆯ 쩌긔. 『釋譜詳節』 권6, 8ㄱ면.

2장에서는 ㅸ과 관련된 음변화, 최소대립쌍, 분포, 그리고 ㅿ, ㅇ과의 비교를 통해 ㅸ의 음운론 지위를 살펴보았다. 15세기 고유어에 있는 ㅸ은 수의적인 'ㅂ→w' 혹은 'ㅂ→Ø'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음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ㅸ과 다른 분절음의 최소대립쌍이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ㅸ은 음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ㅸ과 ㅂ은 포괄적 분포를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ㅸ이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 또한, ㅸ의 성격과 비슷한 ㅿ, ㅇ이 있는데 본고의 고찰을 통해 ㅿ과 ㅇ은 음소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ㅸ은 음소가 아니었을 것이다.

3장에서는 ㅸ의 소리 인식, 制字 원인, 그리고 ㅸ의 표기를 논의하고 ㅸ의 본질을 연구하였다. 세종과 훈민정음 해례에 참여한 집현전 학자들은 모두 외국어에 능통하고『古今韻會擧要』등 운서에는 유성 순치 마찰음이 존재하였다. SLM 이론에 따르면 세종과 학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음성을 식별할 수 있고 당시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β]를 인식할 수 있다. 또한 ㅸ은 고유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가 아니라 훈민정음 문자의 체계성,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이것은 바로 ㅸ의 制字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의 원인을 찾았다. 하나는 세종이 소리보다 형태를 더 중요시하는 표기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세종의 표기 의식은 바로 ㅸ이 쓰이는 원인이 된다. 다른 하나는 집현전 학자들의 精密的 표기 의식이다. 이것은 ㅸ으로 고유어를 표기하는 또 다른 원인이다.

▮ 참고문헌

강신항,『朝鮮館譯語硏究』, 成均館大 出版部, 1995.

_____,「申叔舟의 音韻學」,『語文硏究』제30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349-376면.

김석득,「中世脣輕音ㅸ音素攷」,『人文科學』제12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4, 1-19면.

김한별,「순경음 ㅸ에 대한 통시적 연구—ㅂ 약화 규칙의 어휘 확산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2.

류 렬,『조선말 력사2』, 사회과학출판사, 1992.

박병채,『古代國語의 硏究』(音韻篇), 高麗大 出版部, 1971.

박종철,「ㅸ音考」,『語文硏究』제4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76, 221-234면.

박창원,『중세국어 자음 연구』, 한국문화사, 1996.

소신애,「국어의 ㅿ〉ㅈ 변화에 대하여」,『震檀學報』제114호, 震檀學會, 2012, 51-84면.

_____,「ㅎ의 音價 變化 및 관련 음운 현상의 共時的 기술—ㅎ의 有氣性을 중심으로」,『어문연구』제45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7-34면.

李基文,『國語音韻史硏究』, 塔出版社, 1972.

이동석,「'ㅸ'의 음가론」,『국어사연구』제17호, 국어사학회, 2013, 71-118면.

이숭녕,「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편찬과 훈민정음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아세아연구』제1권 2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58, 29-83면.

李翊燮,『國語表記法硏究』, 서울대 출판부, 1992.

이진호,「국어 최소대립쌍의 설정에 대하여」,『어문학』제107집, 한국어문학회, 2010, 119-137면.

이호영,『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임동석,「朝鮮時代 外國語 敎育에 對한 一考」,『學術誌』제33집, 건국대 학술연구원, 1989, 147-180면.

장가문,「중국어 성조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한남어문학』제37집,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2013, 179-200면.

장 석,「文獻으로 본 日母 漢字音의 變化」,『한중인문학연구』제45집, 한중인문학회, 2014, 343-366면.

_____,「ㅿ-ㅸ의 연쇄로 본 ㅿ의 음가」,『구결연구』제36집, 구결학회, 2016a, 203-235면.

_____,「후기 중세 한국어에서 ㅿ의 음운 자격」,『민족문화연구』제72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6b, 403-430면.

_____,『ㅿ반치음 연구』, 역락, 2018.

_____,「ㅸ의 연구사에 대하여」, 제44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9년 6월 28일, 67-74면.

_____,「ㅸ의 음가에 대하여」,『한중인문학연구』제66집, 한중인문학회, 2020, 215-239면.

장 숴,「뎐의 한국 한자음에 대한 고찰」,『아시아문화연구』제38집, 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15, 215-239면.

장영길,「15세기 국어의 자음체계 연구—그 음소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장운혜,「중세국어 유성마찰음의 변천과 방언 분화—/ㅸ/와 /ㅿ/를 중심으로—」, 조선대 석사학

위논문, 2008.
정연찬,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제16집, 국어학회, 1987, 11-40면.
_____, 『개정 한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1997.
조세용, 「15世紀 中期國語의 子音 音素體系에 관한 硏究」, 『동화와 번역』 제9집,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 1990, 7-25면.
최호섭, 「중세국어 ㅸ에 대한 연구—ㅸ의 음성적 실재와 음 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Flege, J. E.,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Speech perception and linguistic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Timonium MD: York Press, 1995, pp.233-277.

【Abstract】

The Phonological Status and Essence of ㅱ in Late Middle Korean*

Zhang, Shuo**

The scholars have long studied the phonological status of ㅱ, but discussions are still under way. And since ㅱ appeared and disappeared in a short time, it is more unusual than other let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explain the essence of ㅱ. These two issue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ㅱ was a step in the numerical 'ㅂ→w' or 'ㅂ→Ø' in Korean of the 15th century. So ㅱ did not function as a phonem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ㅱ was not a phoneme because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Minimal Pair of ㅱ and other Segments. In addition, ㅱ and ㅂ are in a comprehensive distribution, so it is also difficult to interpret ㅱ as a phoneme. Meanwhile, the ㅿ and ㅇ were difficult to be interpreted as phonemes. Therefore, ㅱ would not have been a phoneme.

King Sejong and the scholars are all fluent in foreign languages. According to the SLM theory, King Sejong and the scholars were able to identify more voices than ordinary people. In addition, ㅱ is a letter made for the systematicness of Hunminjeongeum consonants, and for the use of foreign languages. This is the cause of ㅱ's creation. And King Sejong has a notation consciousness that places more emphasis on form than sound and the scholars have a strong tendency to narrow transcription. This is the reason why ㅱ is used to mark the Native Korean.

Keywords: ㅱ, the Cause of Creation, Sound Recognition, /β/, Phoneme, Allophone.

접수일: 2020.06.30. ‖ 심사일: 2020.07.09. ‖ 게재확정일: 2020.08.17.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2019 Korean Studies Grant Program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2019-R28).

** Assistant professor, Foreign Languages & Literature Dept., Baoji Univ. of Arts and Sciences.